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중기청,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 총 282명 내외 선정·모집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은 지난달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 합동으로 '20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재창업 전 단계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고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규모는 총 282명 내외로 일반과제(267명)와 전략과제(IP전략형 15명) 총 2가지 유형이다.

'일반과제'는 6개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해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모집해 선발하고, 최대 1억원(재창업자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의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별 특화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략과제(IP전략형)'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IP-C&D 전략지원사

업)의 협업사업으로,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선정해 지식재산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함께 지원한다.

지식재산의 제품화란, 내·외부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혁신적 제품개발을 위한 신제품기획, 제품고도화, 디자인개선 전략 수립 지원(특히 청 IP-C&D 전략지원사업)을 말한다.

지식재산의 사업화란 지식재산이 실현된 제품의 시제품 제작, 관련 지식재산 출원료 등을 지원하고, 관련 멘토링·보육공간 등 병행 지원(중

소벤처기업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을 말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1,906명이 재창업에 성공하는 실적을 달성했으며, 재창업 기업들은 2,262억원의 누적 매출성과와 3,81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1,163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보였다.

사업 신청·접수는 15일부터 29일 오후 3시까지(신청 : www.k-startup.go.kr)이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1일 무주지소 개소식을 열었다.

'무주지역 고객들에 편의 제공'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무주지소 출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오재준)는 1일 무주지소 개소식을 열었다.

무주군과 무주군의회에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끝에 올해부터 신설한 무주지소는 적극적인 현장경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장수군에 지사가 소재해 방문하기 불편했던 무주지역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지 임대수탁업무를 1주일에 1~2회 방문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출장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무진장지사는 이밖에도 용수관리, 생산기반, 농지은행, 지역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주군과의 업무효율 및 유대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재준 지사장은 "무주지역의 농업농촌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사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심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김제농협, 당기순익 38억7500만원 달성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지난날 31일 본점3층 대회의실에서 제51기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해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2023년 결산에 따른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상임이사 선출, 결산감사 보고, 결산보고서 승인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제농협은 지난해 사업실적 결산 결과 38억7,500만원의 당기순익과 전기이월금54,000만원을 더한 미저분 이익잉여금 44억1,500만원으로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법외이익이월금으로 22억4,400만원을 적립하고 이용고 배당 11억5,000만원과 출자배당10억 2,100만원을 배당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조합원의 실익을 위하여 영농자금지원비와 재해지원비, 복지증진비 등 25억원의 교육지원사업비를 집행하였다.

이정용 조합장은 "질병·전쟁 등 축적된 리스크로 인하여 올해도 어려운 한 해가 예상 된다"며 "지난 해 성과는 있고 더 나은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변함없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상임이사 선거에서 박현남 상임이사가 재 선출 됐다. 박현남 상임이사는 1983년 농협생활을 시작해 경제상무, 신용상무, 지점장 등을 역임하고 2년 임기인 상임이사를 2018년2월 시작으로 이날 재 선출됨에 따라 5선에 성공했다.

박현남 상임이사는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김제농협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에 헌신하고, 조합원에게 사랑받는 김제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4억7500만원 출연금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는 3월(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1월(저성장)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중관)에 24억7,500만원을 출연했다.

이번 출연금은 올해 상반기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약한 '소상공인 회복보듬자금 지원대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470억원 이상의 저금리 신규대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신공사 전경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002년부터 매년 전북지역보증재단에 기금출연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년대비 출연금액을 대폭 상향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정환 본부장은 "김진년, 전북의 새로운 도약의 해를 맞아 청룡처럼 솟아오르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원재료 가격 및 금리 상승기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한전 군산지사, 명절맞이 '희망나눔 행사' 이웃사랑 실천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는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신체장애인복지회 군산지회를 방문하여 후원 물품을 기탁하였다.

사단법인 전북신체장애인복지회 군산지회(지회장 홍남관은 장애학생과 사회 각 지도층 인사와의 자매결연 운동인 '사랑의 끈 연결운동' 전개와 더불어 생필품 전달과 장학금 후원 등 신체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한국전력 군산지사 직원들은 월급에서 자발적으로 모은 사회공헌활동 활동 기금으로 150만 원 상당의 쌀 라면, 휴지 등 생필품을 구입하여 전북신체장애인복지회에 기탁하였으며, 해당 물품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구민모 지사장은 "김진년 새해를 맞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는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신체장애인복지회 군산지회를 방문하여 후원 물품을 기탁했다.

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혁신적 노력 우수 평가'

순창장류소공인특화센터 '최우수 A등급' 획득

전북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원장 윤여봉)이 운영하는 순창장류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성과평가 '최우수 등급(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36개 소공인특화센터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성과와 운영관리에 대하여 실시한 평가로 순창장류소공인특화센터는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6년에 개소한 순창소공인특화센터는 그동안 장류산업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영세 제조 소공인을 지원하며 참여되어 가는 전통장류의 재도약과 부흥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먼저 2019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온라인 공동마켓(www.고추장마을.com) 매출액이 4년만에 940%가 증가하며 7억5천만원을 달성(29업체 503개 제품)하며 장류소공인의 매출확보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장류 소공인 협업체 5개팀을

구성하여 대학 등과 연계 지원을 통해 숙련장 버섯된장, 들깨고추장 등 신제품 5종을 개발하여 제품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순창장류업체에 100건 이상의 시설개선과 공정개선을 지원하여 장류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고, 매년 맞춤형 소공인 교육과 컨설팅, 포장패키지 지원 등 소공인의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이번 순창장류소공인특화센터가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8년간 장류소공인 업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이뤄낸 성과이다. 현대인의 입맛과 취향에 부응하는 제품으로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도내 지역기반 특화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